



**최** 근 '사찰경영'이라는 말이 관심을 모을 만큼 불교와 경영, 경제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1990년대 등장한 불교경제학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같은 시도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기업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성과나 미래는 크게 달라진다. CEO의 경영철학이 기업성공의 핵심요소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CEO, 사찰서 만난다' 기획의 네번째 주인공은 최재동 VA컨설팅 대표이사. 최 대표이사를 9월 6일 서울 봉은사에서 만나 불교경영과 불자CEO의 역할, 경영의 사회적 회향에 대해 들었다.



서울 봉은사에서 만난 최재동 AV컨설팅 대표이사는 "CEO는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버는 것도 쓰는 것도 '法대로'

## 최재동 VA컨설팅 대표이사

### ▷원만한 인간관계야말로 경영의 '밀전'

모든 CEO는 '이윤 창출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경영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 이윤 창출은 곧 경영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최재동 대표이사는 경영활동에서 경영의 가치를 높이는, Value Adding의 답을 찾는 CEO다.

1996년, 30년간 일해온 현대그룹을 떠난 최재동 대표이사는 이후 전문CEO의 길을 걸었다. VA컨설팅을 비롯해 프라이빗뱅킹, 아웃소싱업체 등 4개 회사를 설립한 것. 불교에 기반한 경영에 눈을 뜬 것도 이때의 일이다.

최재동 대표의 아이디어 연구실은 법당이다. 법당에서 바르게 앉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 법당을 찾는다.

최재동 대표이사가 오랜 경영활동에서 가장 중요시 했던 것은 직원들에 대한 신뢰와 도덕경영이다. 도덕성과 신뢰에서 강한 리더십이 나오고, 이는 곧 최고의사결정자인 CEO의 권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직장생활은 동료간 또는 상하간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죠. CEO는 인간관계를 활용한 경영을 해야 합니다. 굳이 경영에서뿐만이 아니고 도덕성과 신뢰는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열쇠입니다."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도 늘 마음속에 담고 싶었던 회니다. 끊임없는 동기부여는 노동의 가치를 일깨워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동기부여가 없으면 '그저 그런' 월급쟁이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최재동 대표이사도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직장을 단순히 일하고 돈 받는 곳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상사의 조언이 큰 힘이 됐다.

### ▷공부·일...끊없는 배움의 열정

최재동 대표는 운영하던 회사를 VA컨설팅만을 남기고 지난해 모두 분사시켰다. 인생을 어떻게 회향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얻은 결론이었다. 곧바로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불교대학에 접수했고, 나이든 이들에게 배울 점술과 뜬 기술을 일부러 배웠다. 불교공부와 불사를 회향의 길로 선택

한 것이다.

"지금까지 누릴만한건 모두 누렸으니 회향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회향만큼 삶의 가치를 돈보이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들에게 무언가 줄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견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는 최재동 대표이사의 큰 장점이다. 이곳저곳 강의를 찾은 그를 부인은 '연구대상'으로 표현하기까지 한다. 지금도 부족한 것 하나 없는데 일부러 일거리를 찾아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 아이디어 떠올리거나 중요결정 내릴때 법당 찾아 "회향할 수 있다는 것 살면서 얻은 최고 가치"

최재동 대표이사는 일주일에 다섯 번씩 집을 찾은 만큼 열성적으로 불교를 공부한다. 봉사활동에도 철저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좋아서 가는 것이지만 불교를 배울수록 안타까움도 크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뚜렷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돈을 벌고 쓰는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한다.

"돈 없이 살기 힘든 현대사회에서 무조건 욕심을 버리라는 가르침은 큰 효과를 발휘하기 힘듭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교리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불자들은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써야 할지 불교가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글=박봉영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 ■ 최재동 대표이사는

1942년 경북 경산에서 태어나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현대건설에 공채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30년간 현대건설 이사, 현대산업개발 상무, 전무로 일했다.

96년 퇴임후 VA컨설팅 등 4개 기업을 창업해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 봉은사 신도회(청정공덕회) 지도위원이며, 9월 3일 조계종 포교사 자격을 뽐수했다.

**클릭!** 불교문화상품전문 mahamall.co.kr  
불교문화상품 상품문의: (02)732-1520

**■ 에밀레 법당종**

에밀레 법당종(3관)은 지금까지 제작된 3관형 범종 가운데 가장 정교한 제품으로, 실제 에밀레종 탁본을 토대로 실물에 가장 가깝게 조각했습니다. 법당내에서 사용 중이며, 한국불교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에게 선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직경 215mm, 높이 350mm 크기입니다.

가격 : 350,000원 (종를 포함)

## 부다의 경제학 (17)

### 왜 불교경영인가?

우리 사회가 기업이라는 존재를 용인하는 것은 기업 활동이 인간과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저에는 인간의 행복이 경제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의 활동은 우리의 경제적 조건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현대의 기업 활동은 우리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과연 기업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에 도움만을 주고 있는 가라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마냥 찬양만 하고 있는 기업 활동을 불교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며, 그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현대 경영사상에서 비롯된다.

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구촌이 안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은 불교경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기업경영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는 데는 많은 선구적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영에 유독 '불교'를 붙여 불교경영이라 이름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불교경영이 일반적인 경영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교경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행복의 극대화가 경영의 목표이며,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경영의 과정이 윤리적인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주를 포함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으로 중요해지는

### 무한 경쟁시대 고객이 필요하다면 '뭉뚱지'

### 이익만 급급 자본주의 시스템은 위기 초래할 수도

### 윤리적 경영 통한 구성원 행복 극대화 지향해야

현대 경영사상은 이익극대화, 경쟁, 고객만족경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업경영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적인 이익의 극대화이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해야 하고, 고객이 필요로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정신이 현대의 경영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 경영사상은 불교의 정신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주주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전체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고려치 않으며,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인 타락을 초래하는 활동마저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아무 대책 없이 맡길 수는 없다. 불교정신에 입각한 윤리적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대 자본주의의 경제 시스템은 심각한 위기 국면에 봉착할 수 있다.

불교경영과 불교경영학이라는 용어는 아직 불교계에 매우 생소한 말이다. 물론 경영학계에서조차 매우 낯선 개념들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서양의 학자들이 이 분야에서 내놓은 연구 성과도 아직은 매우 미미하다. 학문으

것이 곧 행복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많은 행복이 존재하며 돈을 벌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행복들이 희생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있는 현대의 경영사상이 이익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반면 불교경영은 행복의 극대화를 지향한다.

행복 추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적 활동을 한다. 아무리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다.

또한 불교경영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이 철저히 윤리적인 것을 요구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 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바다 이야기'도 경영자들, 관료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불교경영사상에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바가 있었다면 절대로 바다 밖으로 내놓을 일이 없었을 것이다.

■ 구병진(경영학 박사)

세로 88cm 가로 58cm

**불자가정의가보로 안녕과번영의수호신**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 사는 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애 좋은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세주의 영험을 보여주는 소재이다. 소재화인 수월관음도는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번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이 감탄을 하고 둘째는 생애

## 수월관음도

### 가정의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

함께 감탄을 한다. 험한 세상 자손만대로 안녕과 번영을 지키는 불자가정의 수호신인 수월관음도는 조계종 종정상과 대법명상, 한국불교대전 대상을 수상한 불화의 경장인 법계, 금강, 화백에서 3년간 기도와 영력으로 그린 불화로 100% 천연코튼 판화지에 23도 판화와 배틀린 화사를 사용해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줘도 변색되지 않게 제작 했으며 최고급 2단 들뜸표구로 거실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조있는 영험의 불화다.

불자가정의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뒷면에 카필라 불공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 란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카필라 불공사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헌정하 주기도 하고, 재림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 등 지난해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 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복금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며 편안불공을 파진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계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 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가격 1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 용어해설

-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모습이 그윽한 연꽃위에 비치는 달처럼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구세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 소재화(淸丈畵) 불교에서 소재화란 모든재난과 고통 액운등을 소멸하고 예방한다는 불화 그림을 말한다.

###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 오머니반메홍福지갑

음악의 조화로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물질로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쌓이고, 부부간의 애정은 멀어지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악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풀리지 않아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시회구 기다 립 산중에 계시실 때 가난으로 힘없고 고통속

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오머니반메홍 속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위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습니다. 불경에 일러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불공사에서 절안불공과 속원불공을 마친 오머니반 메홍 부자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최고급으로 제작하고 천연가죽에 만나

노후까지 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악의 조화로 만사가 행통되는 속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앞면에는 동서남북에서 돈을 들어오게 하는 보령과 악귀와 집귀를 쫓고 계 획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힘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승 순금도금화 이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던 장사가 풀리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 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뜻밖에 걱정하 면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는 비방이 있다는 것 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오머니반메홍 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악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놀랍게 회복된 다고한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할때 사용 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새해축원불공을 드려드리며 지갑은 우체국택배로 바로 보내준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장지갑 6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